

하나님과 함께 하는 방법-언약을 지킴

성경본문 <출애굽기 19장 1절 ~ 15절>

[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삼 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2]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3]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4]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7]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8]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뻥뻥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1]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12]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13]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14]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15]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시내 광야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율법이 소개됩니다. 십계명(20장)과 백성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판결, 성소와 제사장, 성막에 관련하여 조목조목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필요와 요구, 심지어 불평과 원망까지도, 선하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3개월 동안 당신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보다 깊은 관계, 곧 언약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의 마음을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1.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약한 모습을 알고서도 사랑하십니다.

[3]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르신 표현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출애굽기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러오셨습시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표현과 함께 **“야곱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이름은 같은 사람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야곱”**이 언약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때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과 하신 일들을 나타낼 때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혼용하여 사용하다가, 그가 요셉의 초청을 따라 애굽으로 가는 장면에서부터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맺으려고 하실 때에 처음 모습, 곧 야곱의 이름으로 부르신 것이 우리의 처음 모습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언약함을 다 알고 계심에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이라고 깨달아졌습니다.

우리의 언약한 모습을 알고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 언약을 지키는 것이 유일한 조건입니다.

[4]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은혜로우심을 보여주셨고, 어려울 때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충분히 경험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담 때부터 계획하고 계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방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제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 스스로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마음과 신의를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제한 없이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여 주시면, 당신이 친히 우리들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이 함께 하는 것이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이며,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기도제목>

1.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2.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